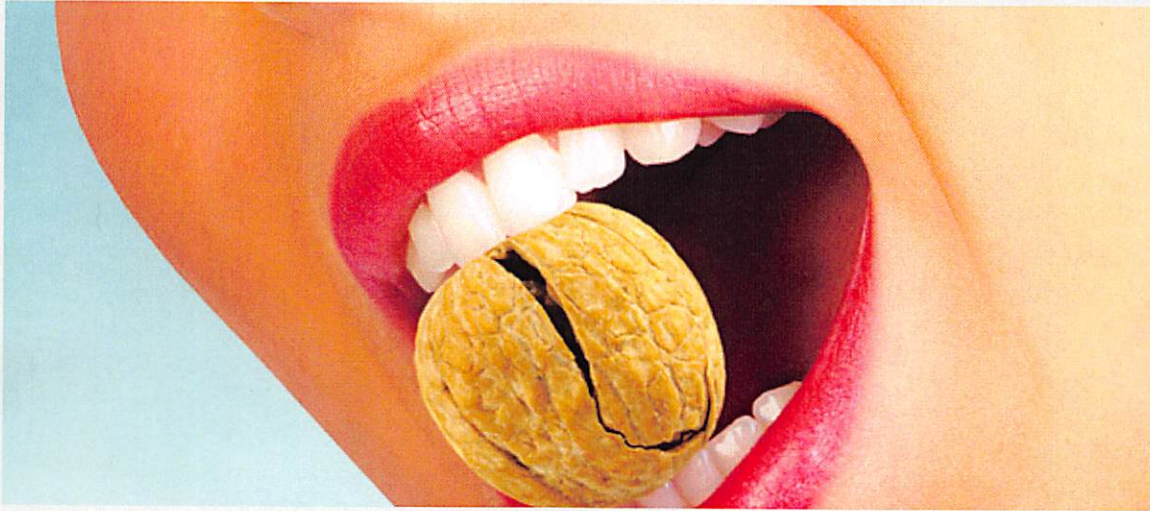


한국인의 고질병, 치아균열증후군

김기영

치과의사 (뉴저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마른 오징어, 누룽지, 북어머리, 오돌뼈, 무말랭이, 간장게장, 얼음, 생쌀, 날밤 등을 열심히 씹어서 드십니다. 삶은 밤의 껍질을 이로 물어서 쪼개기도 하십니다. 이런 식이습관으로 인해 치아는 혹사당하여 결국에는 금(균열, 크랙, crack)이 가는 질환인 ‘치아균열증후군 (Cracked Tooth Syndrome)’ 이란 돌이킬 수 없는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타 민족에 비해 치아균열이 더 많이 생긴다고 증명된 민족간 비교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운 베이컨 정도면 딱딱한 음식으로 여겨지는 서구인의 식습관과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진료를 하면서 경험한 증례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인들에게 치아균열 발생빈도가 높은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치아균열에 대한 논문 중에서 세계적으로 인용 빈도가 높은 것들은 한국에서 많이 나온 점도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 치아균열은 20-30대 나이의 사람들에게

게서 보다는 40-50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로, 나이가 들면서 치아주위조직의 쿠션 역할이 줄어들어서 치아에 가해지는 과도한 힘을 흡수하지 못해서 균열이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30대 이전 까지 가지고 있던 질긴 음식을 즐기던 습관이 40대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에 이 치아균열 잘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치아균열증후군의 증상은 씹을때 시큰거리거나 아픈 것으로 시작되는데, 문제는 치과의사가 이 치아균열을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나 육안으로 실금이 잘 보이지않습니다. 좀 더 나은 진단을 위해 현미경으로 보거나 균열부를 염색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확진은 어렵습니다. 모든 치아에는 어느 정도 실금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금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균열이 뿌리까지 진행되었는지는 이를 빼보기 전에는 정확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치아균열은 우리 인체의 다른 구조



2015 KASCPA CONFERENCE *New York*

제15회 미주한인공인회계사 총연합회 학술대회

와는 달리 스스로 치유되거나 다시 붙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고, 균열은 점점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금이 간 치아가 음식물을 씹을 때마다 치아가 벌어져 쪼개지려는 현상을 막는 것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결국 완전히 덮어 씌우는 크라운 치료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치수의 손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신경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금이 치아의 뿌리 쪽까지 이르렀는 지는 알 수 없고, 또 이 실금이 치아를 씌우고 난 후 한참의 시간이 흘러 뿌리 쪽으로 대나무 갈라지듯 더 진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발치까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진단과 치료에 불확실성이 많은 치아균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결국 예방법 밖에 없습니다. 고기나 견과류같은 어

느 정도 질긴 음식은 안면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마른 오징어나 누룽지같이 지나치게 강한 음식은 나이가 40대 이상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골프채를 스윙하여 골프공을 맞추는 순간 이를 악무는 습관 또한 치아균열 증후군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은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여 치아균열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김기영
치과의사
연대치대졸업
연대치대 구강악안면외과
Private Practice in Seoul
UMDNJ 치대 졸업
Private Practice in NJ

